

# 류현진, 26일 만의 등판서 50닝 2실점...시즌 4승 '불발'

미네소타전 5회말 승리요건 갖추고 내려갔지만 불펜서 승리 날려 시즌 평균자책점 4.17로 조금 낮춰...79개 투구 중 50개 스트라이크

류현진(30·LA 다저스)이 시즌 4승째 수확을 눈 앞에 뒀다가 놓쳤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0닝 5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는 2-2로 맞선 5회말 1사 3루 상황에서 류현진이 타석에 들어설 차례가 되자 대타 체이스 어플리를 내세웠고, 류현진은 그대로 등판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2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4회 급격히 흔들리면서 2점을 허용했지만, 타선이 5회말 힘을 내면서 3점을 올리며 역전해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6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그랜트 데이턴이 동점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승리가 날아가고 말았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은 4.21에서 4.17로 조금 낮아졌다.

전반기에 14경기에 등판해 72% 이닝을 소화하며 3승 6패 평균자책점 4.21의 성적을 거둔 류현진은 전반기 마지막 등판인 지난달 29일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4회말 앤드렐톤 시몬스의 타구에 왼 발을 맞았다.

당시 발을 맞고도 투구를 이어갔던 류현진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이 계속돼 전반기를 일찌감치 마쳤다.

류현진은 팀 선발직 사정상 후반기가 시작되고 10일 만에 선발로 마운드에 섰다.

79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5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고, 삼진 5개를 속아냈다. 그러나 볼넷도 3개를 내줬다.

지난달 29일 에인절스전 이후 26일 만의 복귀전이었지만 류현진은 경기 초반 힘을 많이 쏟아놓지 않는 모습이였다.

1회초 브라이언 도저, 조 마우어를 우익수 뜯공과 삼진으로 잡은 류현진은 미겔 사노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에두아르도 에스코바를 2루수 뜯공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2, 3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3회 1사 후 바틀로 콜론을 3구 삼진으로 잡아냈고 브라이언 도저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류현진은 볼카운트 1BIS에서 체인지업을 던져 도저의 헛스윙을 이끌어냈고, 이어 컷 패스트볼을 몸쪽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4회 마우어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사노에게 체인지업으로

병살타를 유도해 순식간에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에스코바를 풀카운트 끝에 볼넷으로 내보낸 류현진은 에디 로사리오에게 던진 6구째 속구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좌측 펜스를 직접 맞는 적시 2루타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은 계속된 2사 2루에서 로비 그로스먼에 볼넷을 허용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 류현진은 후속타자 제이슨 카스트로에게 좌측선 바로 안쪽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를 얻어맞아 실점이 2로 늘었다.

이 때 1루 주자 그로스먼이 홈까지 파고들었다. 셰이프가 됐다면 류현진의 실점이 3으로 늘어날 상황.

심판은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의 태그가 빨랐으며 아웃을 선언했지만, 미네소타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아웃으로 선언되면서 류현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류현진은 5회에도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잭 그라나테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콜론에게 희생번트를 허용해 1사 2루에 몰렸다.

류현진은 도저를 헛스윙 삼진으로 속아냈지만, 마우어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내 2사 1, 2루의 위기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사노에게 슬라이더로



류현진(30·LA 다저스)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를 펼치고 있다.

좌익수 플라이를 유도해 실점없이 이닝을 마쳤다.

패전 위기에 놓였던 류현진은 5회말 다저스가 그랜달, 자크 페더슨이 연속타자 홈런을 작렬해 동점을 만들어 패전에서 벗어났다.

3루타를 친 야시엘 푸이그가 크리스 타이러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다저스가 3-2로 역전하면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갖췄다.

5회 1사 3루 상황에서 맞은 타석 때 대타로 교체되면서 류현진은 승리

요건을 갖추고 6회 그랜트 데이턴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하지만 데이턴이 6회 1사 후 로사리오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류현진의 승리로 날아가고 말았다.

## 남소트트랙 대표팀 “우리의 대회는 이미 시작됐다”

3년 전 소치 노메달 수상 평창서 명예회복 다짐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공개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평창에서 '소치의 수도'를 갠기 위해 다시 댈다.

쇼트트랙은 한국 동계스포츠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다. 그동안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26개의 금메달 중 21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부터다. 초창기부터 세계 최정상 기량을 지녔던 덕분에 대회를 치를수록 스타들이 쏟아졌다.

'릴레함메르' 유혈어를 만든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의 김기훈을 시작으로 김동성, 빅토르 안(러시아·한국명 안현수), 이정수 등이 올림픽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20년 가까이 계속되던 남자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은 2014년 소치대회에서 맥이 끊겼다. 남자 대표팀은 첫 종목이었던 1500m에서 이한빈이 6위에 그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고 메달이 유력했던 5000m 계주에서도 파이널 B로 밀려났다.

때마침 파벌 문제에 놓였다가

러시아 귀화를 선택한 빅토르 안이 금메달 3개를 휩쓸는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한국 남자 쇼트트랙은 분의 아니게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 했다.

25일 오전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쇼트트랙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한 김선태 남자대표팀 감독은 "소치에서 선수들의 자신감도 떨어졌고 쇼트트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설욕을 위해 4년을 기다렸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 쇼트트랙은 평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이 추운 사이 그 동안 다크호스로 분류되던 팀들이 빠르게 기량을 끌어올리면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

김 감독은 "각국에 금메달을 딸 선수가 10명 정도는 있다. 철저하고 월등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올림픽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서이락(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황대현(부흥고), 김도겸(스포츠타운), 박윤기(고양시청)로 꾸

려졌다. 2010년 밴쿠버 대회를 경험했던 박윤기를 제외하면 모두 올림픽 무경험자다.

올해 세계선수권 종합 1위를 차지한 서이락은 "첫 올림픽 출전인데 장소가 한국이라 많이 설렌다.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처음이기에 떨지 않고 패기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남자대표팀이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유일하게 올림픽의 맛을 본 박윤기는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박윤기는 "주변에서 혼지만 경험이 있어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다. 스피드나 테크닉은 나보다 훌륭해 그런 면에서 딱히 할 말은 없다"고 웃었다.

어느덧 28살이 된 박윤기에게 평창 대회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공산이 크다. 박윤기는 "소치대회는 부상으로 출전이 좌절됐다. 아픈 기억이 있어서 더욱 초심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윤기보다 10살이나 어린 황대현은 "(세대 차이보다는) 나이가 가나 오리라 따뜻하게 대해줘서 좋다"고 고백했다.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 대표팀은 오는 31일 캐나다 캘거리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캘거리에서는 현재 지속 중인 체력 훈련과 순위 경쟁에 필요한 스피드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시합날은 (내년) 2월10일이지만 우리의 시합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매일 금메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이번에는 남자가 우리 쇼트트랙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많이 응원해달라"며 성원을 당부했다.

뉴스

## 美人론 “허리 통증 커쇼, 4~6주 뒤 복귀 가능”

올해 21경기 선발등판해 15승2패 평균자책점 2.04

경기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온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29)가 한 달 이상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CBS 스포츠 등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허리 통증을 호소한 커쇼가 재활에 4~6주가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허리 부상으로 재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커쇼는 2회초 2사 후 몸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트레이너가 몸 상태를 살핀 후 마운드를 내려갔고 커쇼는 연습 투구를 한 뒤 실점없이 이닝을 마쳤다.

커쇼는 결국 2회말 타석 때 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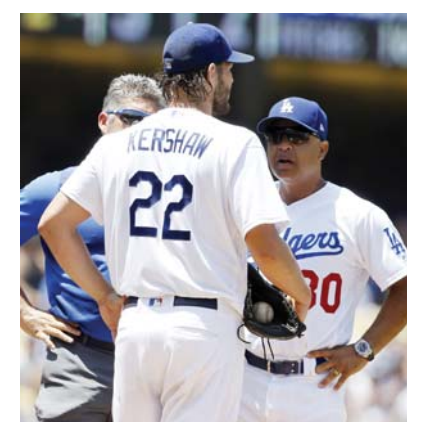
트레이서 톰슨으로 교체됐다. 다저스 마운드는 3회 로스 스트러플링으로 교체됐다.

커쇼는 2이닝 무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등판을 마쳤다. 곧바로 병원 검사를 받은 커쇼는 다행히 디스크가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LB.com은 "커쇼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로 두 달 반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로버츠 감독은 커쇼의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커쇼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폭스 스포츠'는 "커쇼가 복귀까지 4~6주가 걸린다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MLB.com은 "로버츠 감독이 4~6주가 걸린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알buquerque"고 했다.

커쇼는 올 시즌 21경기에 선발



등판해 15승 2패 평균자책점 2.04로 에이스의 면모를 아낌없이 과시 중이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다저스로서는 커쇼의 공백이 뼈아프다.

현지 언론들은 에이스 없이 한 달 이상을 버텨야하는 다저스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스

## 김상현, 결국 올시즌 KBO리그서 못 댈다

추신수, 마이애미전 1안타...10G 연속 출루

kt가 웨이버 공시한 김상현(37)이 다른 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했고 올 시즌은 KBO리그에서 뛰지 못했다.

김상현은 지난해 7월13일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kt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1년의 시간이 지나 지난 14일, kt는 "김상현에 대해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했고 이어 웨이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는 풀어주되 kt에서는 뛰지 못한다는 결정이었다.

KBO는 kt의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김상현의 웨이버 공시를 타구단에 알렸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는 7일 이내로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그 팀으로 이적 가능하다. 만약 7일 이내에 불러주는 구단이 없다면,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당해 년도에는 프로야구 선수로 될 수 없다. 24일이 웨이버 공시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1년을 쉬 노장 김상현을 데려갈 구단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김상현은 FA 계약 선수가. 그는 2015시즌을 마치고 kt와 3년1년으로 총 17억원의 FA 계약을 했다. 계약금 8억원, 3년간 연봉 2억 원씩 옵션이 매년 1억원씩이었다.

김상현을 데려가는 구단은 올해 남은 연봉(약 1억원)을 지급하는 부담이 있다. 또 2018시즌까지 FA 계약이 된 상태라 내년 연봉 2억원+옵션 1억원도 승계해야 한다.

이로써 김상현은 올해 임의탈퇴 기간에 뛰고 있던 독립구단 저니맨에 알렸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는 7일 이내로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그 팀으로 이적 가능하다. 만약 7일 이내에 불러주는 구단이 없다면,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당해 년도에는 프로야구 선수로 될 수 없다. 24일이 웨이버 공시 마지막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10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밀린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쳐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던 추신수는 이날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추신수는 지난 16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이어온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을 '10경기'로 늘렸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48(330타수 82안타)를 유지했다. 추신수는 3회 1사 1루에서 우익수 앞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2루까지 뛰다가 아웃당해 아쉬움을 남겼다.